

부모의 성인애착과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 결혼불만족의 매개효과*

김 혜 원

유 성 경[†]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성인애착과 양육행동의 관계를 정서조절곤란과 결혼불만족이 매개하는 구조모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모형검증을 위해, 만 3~5세 자녀의 부모 총 704쌍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APIM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부정양육행동과 긍정양육행동을 각각 독립모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각각의 애착불안이 긍정양육행동에는 정서조절곤란을 완전매개로 혹은 정서조절곤란과 결혼불만족의 순차적 이중매개로 영향을 미쳤고, 부정양육행동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정서조절곤란을 부분매개로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의 애착회피도 긍정양육행동에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결혼불만족 혹은 정서조절곤란을 부분매개로 혹은 정서조절곤란과 결혼불만족의 순차적 이중매개로-, 부정양육행동에는 정서조절곤란을 완전매개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어머니의 애착회피는 결혼불만족을 완전매개로 긍정양육행동에만 영향을 주었고, 부정양육행동에는 어떠한 직·간접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둘째, 배우자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성인애착의 효과는 아버지들에게만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애착불안/회피가 어머니의 긍정양육행동에는 아버지의 정서조절곤란과 어머니의 결혼불만족의 순차적 이중매개로, 어머니의 부정양육행동에는 아버지의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앞으로의 연구 방향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성인애착, 정서조절곤란, 결혼불만족, 양육행동,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

* 본 연구는 김혜원(2015)의 이화여자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부모의 성인애착과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 결혼불만족의 매개효과: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유성경,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Tel: 02-3277-3911, E-mail: skyoo@ewha.ac.kr

현대 사회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 및 부모 역할과 관련된 요구 수준은 더 높아졌고 (박정윤, 장영은, 2013), 가족 내에서 양육과 돌봄을 주로 담당해왔던 기혼 여성들의 사회 진출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윤소영, 김혜진, 2013). 이로 인해 부모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취학 전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다른 생활 주기에 비해 부모의 무조건적 돌봄이 더욱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에 비해 정서적 성숙도나 부모 역할 수행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낮아(안명희, 2010a), 부모로서 겪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들의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하다.

사실상 그동안 심리학 분야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그런데 부모 양육행동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모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을 조망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자녀들에게 관심의 초점을 기울이고, 부모 역할에 대한 처방적인 결론을 내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부모로서 겪는 어려움을 다층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 하기보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문제시되는 측면을 부각하고, 행동적인 지침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접근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어떤 처방적인 방법을 제시한다고 해서 이를 부모들이 쉽게 자신의 양육행동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부모 스스로가 자신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관련 변인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겠하다. 이와 관련하여 Luster와 Okagaki(1993)는 단순히

양육행동을 표면적으로 살펴보는 것뿐 아니라 부모의 개인적 역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부모의 성인애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틀이 되는 애착이론을 살펴보면, 인간은 생애 초기에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정서적 유대 관계인 애착관계를 형성하면서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타인이 반응적이고 접근 가능한 존재인지에 대한 신념과 기대 즉, 자기와 타인에 대한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한다(Bowlby, 1988). 이후 내적작동모델은 친밀한 사회적 관계의 원형으로 작용하여 성인애착으로 발전되는 지속적인 특성이 있다(이시은, 이재창, 2005; Sroufe, Egeland, Carlson, & Collins, 2005). 비록 현재 보이는 성인애착이 반드시 어린 시절에 형성된 애착이라고 확인하기는 어렵지만(Simpson, Rholes, & Nelligan, 1992),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애착이론가들은 성인애착이 최소한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 기반하여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김동직, 한성열, 1997; 전효정, 2003; Hazan & Shaver, 1987; 이윤영, 전효정, 2009에서 재인용). 더욱이 회고적으로 애착을 측정하는 경우,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회상 당시의 기분에 따라 어린 시절에 대한 묘사가 달라질 수 있고 (Roisman, Padron, Sroufe, & Egeland, 2002), 기억이 왜곡되기도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Kaufman & Zigler, 1989; Van Ijzendoorn, 1992). 따라서 성인들의 애착패턴 및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양육자와의 애착을 회상방식으로 묻기보다는 현재의 친밀한 이성 관계에서 평가한 자기보고 자료를 활용하여 애착을 측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Cook, 2000; Overbeek, Vollebergh, Engels, & Meeus, 2003; Shaver, Belsky, & Brennan, 2000; Shaver & Mikulincer, 2002). 이에 부모가 어릴 적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한 내적작동모델이 성인이 된 지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부모의 성인애착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런데 관련 선행 연구들은 어머니의 애착이 양육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매개변인이나 조절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고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김광은, 2005; 김재형, 2014; 안명희, 2010a, 2010b). 이와 관련하여 Sroufe(2005)는 매개효과가 있을 경우에 애착의 영향력이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매개변인들이 포함되어도 여전히 애착의 영향력이 유의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애착관련 내적작동모델이 가동되는 구체적인 경로가 복잡하다는 이론적 주장(Cook, 2000; Hamilton, 2000; Lewis, Feiring, & Rosenhal, 2000)에 기반하여, 부모의 성인애착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다른 변수들이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고, 그에 따른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Cowan, Cowan과 Mehta(2009)는 Hill, Fonagy, Safier와 Sargent(2003)가 언급한 감정의 조절/조절장애가 내적작동모델과 가족 구성원 간의 일상의 관계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기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서조절곤란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성인애착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모의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성인애착과 정서조절곤란, 양육행동 세 변인을 살펴본 연구 자체가

적고, 그마저도 변인들의 부분적인 관계만을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다(전효정, 2003; Cohn, Cowan, Cowan, & Pearson, 1992; Das Eiden, Teti, & Corns, 1995; Lovejoy, Graczyk, O'Hare, & Neuman, 2000). 따라서 성인애착, 정서조절곤란, 양육행동 변인을 하나의 모형 안에서 살펴보고자 하였고, 성인애착과 양육행동의 관계 속에서 정서조절곤란의 역할을 규명하는데 더 초점을 두었다.

다음으로 Cowan 등(2009)은 “초기 애착경험이 부모가 되었을 때의 자녀양육행동을 결정한다.”고 주장하는 애착이론의 관점은 경로를 과잉 단순화하여 보는 것이라고 지적하였고, Clulow(2009)도 애착의 영향력을 살펴볼 때에 보다 복잡한 가족 내의 연결망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이 애착과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예측하는 변인이 바로 부부관계 변인이고(Clulow, 2009; George, 2009), 이러한 부부관계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이용되고 있는 변수가 결혼불만족이다(정현숙, 2001). 그러나 몇몇 연구(Caspi & Elder, 1988; Cohn et al., 1992; Dickstein, Seifer, Albus, & Magee, 2004)를 제외하고, 애착연구자들은 부부관계가 자녀양육행동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력을 간과하여 왔기 때문에(Cowan et al., 2009), 본 연구를 통해 성인애착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모의 결혼불만족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한편, 최근 양육행동과 관련된 연구들은 어머니의 그늘 아래 숨겨지고 소외되었던 아버지의 존재가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설명하는 중요한 기제가 됨을 보고하였고(이영미, 민하영, 2006), 부성의 영향력이 모성의 영향력만큼 클 뿐 아니라 발달 영역에 따라 오히려 아

버지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방희정,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행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지 않고 '부모'로 한 번에 응답하도록 하거나 어머니의 양육행동만을 조사한 후 부모의 양육행동을 대표하는 것으로 본 선행 연구들이 많아(박영신, 김의철, 1998; 이순형, 이영미, 1992) 이러한 선행 연구들로는 부모 역할의 특성을 비교하고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임정하, 2006). 더욱이 부모와 같은 커플관계에서는 두 개인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특성이 자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신의 특성이 상대 배우자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Feeney, 2003). 애착 결합의 역동적인 성격으로 각자의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의 맥락(환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Marvin & Stewart, 1990). 따라서 상호의존적인 속성을 지니는 부부관계를 살펴볼 때, 양방향 간 상호 역동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Ponnet et al., 2013), 부부관계에서 자신의 영향과 상대방의 영향 중 어느 영향력이 더 큰가를 이해하는 것을 통해 부부관계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Cook & Kenny, 2005). 이렇게 부부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자녀양육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최효식, 연은모, 2014).

실질적으로 선행연구들을 통해 남편의 성인 애착과 아내의 성인애착이 상관이 있음($r=.23 \sim .45$)을 확인할 수 있고(안하얀, 2016; 이윤정, 2016; 장빛나, 2016), 자신의 성인애착이 배우자의 양육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가 없다는 한계는 있지만, 성인애착이 부부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최효식, 연은모, 윤영, 홍윤정, 2014; 한혜영, 현명호, 2006), 이

러한 부부관계의 질이 자신 및 배우자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최효식, 연은모, 2014; Cummings, Goeke-Morey, & Raymond, 2004; Gardner, Qualter, & Whiteley, 2011; Rane & McBride, 2000) 및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자신 및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를 거쳐 아버지의 긍정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최효식, 연은모, 2014)를 통해 자신의 성인애착이 배우자의 양육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조절곤란과 결혼불만족이 매개효과를 보일 것으로 가정하고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연구모형을 검증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긍정양육행동이 단지 부정양육행동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Belsky, Sligo, Jaffee, Woodward, & Silva, 2005; Chen & Kaplan, 2001; Shaffer, Burt, Obradović, Herbers, & Masten, 2009), 부모의 양육행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육행동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는 주장(이선희, 2012)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정양육행동과 긍정양육행동을 포함하되 둘을 독립모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아버지도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고, 더 나아가 부모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살펴보고자 부모 커플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APIM 모형(Actor and Partner Interdependent Model: APIM)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Kenny, 1996). 셋째, 부모들의 애착을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 양육자와의 애착을 회상 방식으로 묻기보다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주요 타인과의 애착경험을 살펴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주장에 따라 부모가 회고하여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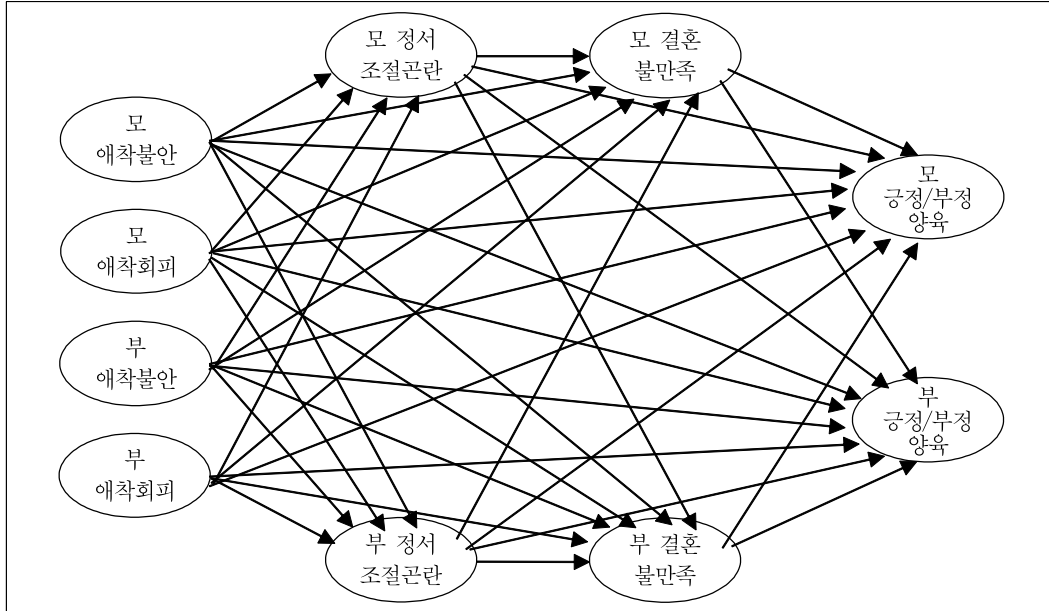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¹⁾

한 아동기 애착 대신 부모의 성인애착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양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신들의 양육행동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우며, 부모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에서 보다 바람직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초점을 맞춰야 할 부모의 심리내적·관계적 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고,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성인애착과 양육행동(긍정/부정) 간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2: 부모의 성인애착과 양육행동(긍정/부정) 간 관계에서 결혼불만족이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3: 부모의 성인애착과 양육행동(긍정/부정) 간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 결혼불만족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가?

1) 연구모형(그림 1)에는 양육행동을 긍정/부정양육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만 3~5세 자녀를 둔 부모 총 704쌍을 대상으로 하였고, 자료 수집은 2014년 9월 20일~11월 말 동안 진행되었다. 먼저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가족, 친구, 교회, 소아과, 어린이 도서관, 강연장 등을 통해 알게 된 만 3~5세의 자녀를 한 명 이상 키우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시작하였고, 다시 이들의 주변 인물들로 확대해서 표집하는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눈덩이 표집을 통해 수거된 자료 가운데 부모 중 한 쪽만 응답하거나 불성실한 응답이 포함된 자

으로 표기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긍정양육행동과 부정양육행동을 독립모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료 107쌍을 제외한 후, 최종 250쌍(온라인: 128쌍, 오프라인: 122쌍)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눈덩이 표집 방법과 함께 충북, 경기, 서울, 경북의 13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서울에 위치한 1개의 교회에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연구자가 미리 해당 기관의 원장 및 교역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 허락을 받았고, 해당 기관의 원장과 교사들이 원생들을 통해 부모에게 설문지를 전달하고 회수하였다. 총 14개 기관에 총 1030쌍(총 206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부모 중 한쪽만 응답하거나 불성실한 응답이 포함된 자료 72쌍을 제외한 후, 454쌍의 자료가 수집되어, 최종적으로 수집된 704쌍(온라인: 128쌍, 오프라인: 576쌍)의 설문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 응답 시, 만 3~5세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부부가 상의하여 동일 자녀를 정하고, 이 자녀를 대상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측정도구

성인애착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Brennan, Clark와 Shaver(1998)가 개발한 친밀관계경험 검사(Experience in Close Relationships Questionnaire: ECR)를 Fraley, Waller와 Brennan(2000)이 문항반응이론을 활용하여 친밀관계경험 검사 개정판(ECR-Revised: ECR-R)으로 개정하고, 이를 김성현(2004)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을 이용하였다. ECR-R은 관계에 대한 지나친 몰두 또는 버림받는 것과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를 측정하는 애착불안(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을까봐 자주 걱정한다.”)과

친밀함에 대한 꺼림이나 불편함의 정도를 측정하는 애착회피(예: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 편이다.”)의 2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18문항씩 총 3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고, 이때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 해당 차원의 애착 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성현(200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애착불안 차원이 .89, 애착회피 차원이 .85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α 는 아버지의 애착불안 차원이 .89, 어머니의 애착불안 차원이 .91, 아버지의 애착회피 차원이 .84, 어머니의 애착회피 차원이 .86이었다.

정서조절곤란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측정하기 위해서 Gratz와 Roemer(2004)가 개발하고, 조용래(2007)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정서조절곤란 척도(Korean Version of 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Scale, K-DERS)를 사용하였다. K-DERS는 원판과 마찬가지로 6개의 하위요인인 충동 통제 곤란(예: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행동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경향(예: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주의를 기울인다.”),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예: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느끼는 나 자신에게 짜증이 난다.”),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예: “내 감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정서조절 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예: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내 기분을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고 믿는다.”), 목표지향 행동의 어려움(예: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더라도, 여전히 일은 끝마칠 수 있다.”)

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36개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역채점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정서조절곤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용래(2007)의 연구에서 6개 하위 척도들의 Cronbach's α 는 .76~.89였다. 본 연구에서는 6개 하위 척도들의 Cronbach's α 는 아버지가 .77~.89, 어머니가 .76~.90을 보였다. 정서조절곤란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 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94로 나타났다.

결혼불만족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표준화된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K-MSI)를 이용하였다. 이 검사는 임상심리학자인 Snyder(1979)가 개발한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MSI)를 기초로 권정혜와 채규만(1998)이 한국 부부들의 결혼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총 14개의 소척도, 1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중에서 전반적 불만족 척도(Global Distress Scale) 22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전반적 불만족 척도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결혼불만족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응답자의 부부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족과 전체적인 부부관계의 분위기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 임상이나 상담 장면에서 부부문제를 발견하기 위한 선별 검사로 사용할 수 있다(권정혜, 채규만, 1999). 전반적 불만족 척도의 원본은 예/아니오의 2점 척도 질문인데, 본 연구에서는 이희숙과 박경(2008)이 변인의 변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재구성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전반적 불만족 척도는 본래 부부관계의 불만족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연구 해석상의 혼

돈을 막기 위해 10개의 긍정 문항들(예: 내 결혼은 매우 만족스럽다/ 내 생각에 우리 결혼은 성공적이다)을 역 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결혼불만족도가 높다고 해석하였다. 이희숙과 박경(2008)의 연구에서 전반적 불만족 척도의 Cronbach's α 는 .9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α 는 아버지의 결혼불만족이 .94, 어머니의 결혼불만족이 .95로 나타났다.

양육행동

양육행동척도는 박성연과 이숙(1990)의 양육행동척도와 Block(1981)의 CRPR(Child Rearing Practice Report)를 참고로 유우영(1998)이 제작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양육행동 척도는 총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는데, 하위요인의 개념을 살펴보면 애정(예: “자녀를 껴안아주고 다독거리 준다.”)은 자녀를 따뜻하고 친밀히 대하고, 자녀 중심적이면서 자녀를 존중해주고 수용해주며,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육행동이다. 거부·통제(예: “부모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따르도록 한다.”)는 자녀에게 불만과 비난을 표현하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벌을 주어 성인의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하거나 벌로써 강요하는 양육행동이다. 과보호(예: “다른 아이와 문제가 생기면 일단 내가 끼어든다.”)는 자녀의 독립적인 행동을 막으면서 자녀에게 지나친 관심을 주거나 뒷바라지 하는 양육행동이고, 일관성(예: “자녀의 어떤 잘못에 대해 심하게 야단을 치기도 하고 내버려두기도 한다.”)은 부모가 하루의 일과를 정해놓고 자녀로 하여금 정해진 규칙을 따르도록 하는데 자신이 있으며 자녀에게 일관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녀가 부모의 행동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립성 지향(예: “자녀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한다.”)은 자녀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주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하며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총 34개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애정적 태도, 일관적 태도, 독립적 태도는 긍정양육행동으로, 거부/통제적 태도와 과보호적 태도는 부정양육행동으로 합산하였으며, 역채점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각각 긍정양육행동과 부정양육행동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은혜(2011)의 연구에서 양육행동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 는 .8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긍정양육행동(애정적 태도, 일관적 태도, 독립적 태도)의 Cronbach's α 는 부모가 모두 .88로 나타났고, 부정양육행동(거부/통제적 태도, 과보호적 태도)의 Cronbach's α 는 아버지는 .81, 어머니는 .82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분석했다. 첫째, 성인애착, 정서조절곤란, 결혼불만족, 긍정양육행동과 부정양육행동 각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했다. 둘째, 연구변인의 경향성과 정상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확인했다. 셋째,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Pearson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했다. 넷째, 성인애착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조절곤란과 결혼불만족의 매개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여 매개모형의 적합도 및 직간접 경로들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격적인 모형 검증에 앞서, Russell, Kahn, Spoth, 와 Altmaier(1998)의 제안에 따라 문항 꾸러미(item parcels)를 제작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부연하면, 성인애착과 결혼불만족은 문항들을 무선적으로 선택하여 각각 3개의 문항 꾸러미를 만들었고, 정서조절곤란과 양육행동은 각각의 하위척도를 측정변인으로 이용하여 잠재변인을 구성하였다.

구조모형 검증은 구조방정식의 2단계 접근법(Anderson & Gerbing, 1988)에 따라 진행했다. 우선,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히 구인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했다. 다음으로, 구조모형의 전체 적합도 및 각 경로의 유의도를 확인했다. 모형의 적합도는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여 영가설을 쉽게 기각할 수 있는 χ^2 값 이외에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cker-Lewis Index),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함께 확인했다. 이때, CFI와 TLI가 .90 이상이고(Bentler, 1990), RMSEA가 .08 이하이면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판단했다(MacCallum, Browne, & Sugawara, 1996).

성인애착과 긍정/부정양육행동 사이에서 정서조절곤란과 결혼불만족의 간접 효과에 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Shrout & Bolger, 2002)을 실시했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는 다중 매개효과 검증 시 개별 간접 효과에 관한 추정치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팬텀변인(phantom variable)을 설정한 후 부트스트랩 절차를 통해 변인들의 개별 간접 효과를 확인했다(배병렬, 2011). 부트스트랩 절차는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

한 방법에 따라, 본 연구의 원자료(N=704)로부터 무선할당으로 만들어진 2,000개의 표본에서 간접 효과를 추정했고, 간접 효과의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때, $\alpha=.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기술 통계치 및 상관

모형검증에 앞서, 측정 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그리고 변수 간 상관계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대체적으로 변수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불만족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내었다($r=.64$). 또한 대체적으로 애착불안이 애착회피보다 다른

결 과

표 1. 잠재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변수 간 상관계수 (N=704쌍)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모 애착불안	1											
2. 모 애착회피	.27**	1										
3. 모 정서조절곤란	.57**	.25**	1									
4. 모 결혼불만	.30**	.25**	.32**	1								
5. 모 긍정양육	-.34**	-.25**	-.46**	-.32**	1							
6. 모 부정양육	.44**	.16**	.56**	.32**	-.62**	1						
7. 부 애착불안	.19**	.11**	.13**	.22**	-.10**	.10**	1					
8. 부 애착회피	.05	.13**	.04	.12**	-.09*	.04	.23**	1				
9. 부 정서조절곤란	.16**	.13**	.16**	.24**	-.19**	.21**	.55**	.31**	1			
10. 부 결혼불만	.14**	.08*	.16**	.64**	-.20**	.17**	.35**	.26**	.40**	1		
11. 부 긍정양육	-.08*	-.11**	-.09*	-.29**	.29**	-.21**	-.28**	-.25**	-.42**	-.45**	1	
12. 부 부정양육	.08*	.02	.07	.20**	-.18**	.24**	.39**	.17**	.47**	.32**	-.55**	1
평균	2.73	3.51	2.47	2.42	3.43	2.80	2.74	3.72	2.42	2.20	3.40	2.65
표준편차	0.86	0.77	0.50	0.75	0.42	0.54	0.78	0.72	0.49	0.65	0.44	0.53
왜도	.79	.15	.17	.46	.07	.03	.43	-.06	.00	.38	.08	.17
첨도	.68	.01	.02	.06	.09	.47	-.19	.40	-.01	-.10	.34	.32
최소값	1	1.5	1.23	1	2.19	0.76	1	1.06	1.11	1	1.81	1.31
최대값	5.89	6.06	4.26	5	4.71	5.08	5.39	5.89	4.11	4.82	4.76	4.92

주. 1. * $p<.05$, ** $p<.01$
 2. 가능한 점수 범위: 부모 불안 및 회피(1~7), 부모 정서곤란, 결혼불만족, 양육행동 및 기질(1~5), 부모 스트레스(0~1)

변인들과 더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착불안이 자신의 정서조절곤란(부: $r=.55$, 모: $r=.57$) 및 부정양육행동과의 관계의 수치(부: $r=.39$, 모: $r=.44$)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착회피가 자신의 정서조절곤란(부: $r=.31$, 모: $r=.25$) 및 부정양육행동과 갖는 관계의 수치(부: $r=.17$, 모: $r=.16$) 보다 큰 경향을 보였다. 반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착불안이 자신의 결혼불만족(부: $r=.35$, 모: $r=.30$) 및 긍정양육행동과 갖는 관계의 수치(부: $r=-.28$, 모: $r=-.34$)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착회피가 자신의 결혼불만족(부: $r=.26$, 모: $r=.25$) 및 긍정양육행동과 갖는 관계의 수치(부: $r=-.25$, 모: $r=-.25$)보다 약간 큰 정도로 나타났을 뿐, 정서조절곤란 및 부정양육행동에서처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결혼불만족과 아버지의 긍정양육행동 간의 관계($r=-.45$)는 어머니의 결혼불만족과 어머니의 긍정양육행동 간의 관계($r=-.32$)보다 상대적으로 더 밀접한 상관을 보였다. 반면 아버지의 결혼불만족과 아버지의 부정양육행동 간의 관계는 어머니의 결혼불만족과 어머니의 부정양육행동 간의 관계와 같은 정도($r=.32$)로 나타났다.

한편,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각 변인들이 정상분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연구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그런데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정상분포곡선(왜도 <2 , 첨도 <4)을 고려했을 때(Hong, Malik, & Lee, 2003),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정상분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VIF 지수를 살펴보았다. 예측 변인 간

상관이 클수록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우려되는데(Marsh, Martin, James, & Richard, 2004), 본 연구에서는 양육행동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나머지 변인들의 VIF지수를 확인해 본 결과, 1.16~2.13까지 분포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우려될 수준 $VIF>10$ (송병호, 최규정, 2000)이 아님을 알 수 있고, 결과적으로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측정모형 분석

긍정양육행동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36개의 측정변수들이 성인애착, 정서조절곤란, 결혼불만족, 긍정양육행동 총 10개의 잠재변수를 적절히 구인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AMOS를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df=549, N=704)=1703.744, p<.001, CFI=.92, TLI=.909, RMSEA=.055(90\% \text{ 신뢰구간 } .052 \sim .058)$. 또한, 측정변수들은 잠재변수에 .39~.94까지 적재된 것으로 나타났고, 모두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측정변수에 대한 잠재변수의 요인 부하량은 모 불안이 .85~.90, 모 회피가 .70~.87, 부 불안이 .81~.87, 부 회피가 .64~.83, 모 정서조절곤란이 .39~.86, 부 정서조절곤란이 .45~.86, 모 결혼불만족이 .90~.94, 부 결혼불만족이 .87~.91, 모 긍정양육행동이 .63~.72, 부 긍정양육행동이 .61~.75이었다.

부정양육행동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34개의 측정변수들이 성인애착, 정서조절곤란, 결혼불만족, 부정양육행동 총 10개의 잠재변수를 적절히 구인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AMOS를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측정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df=482, N=704)=1386.837, p<.001, CFI=.934, TLI=.924, RMSEA=.052(90\% \text{ 신뢰구간 } .049 \sim .055)$. 또한 측정변수들은 잠재변수에 .38~.93까지 적재된 것으로 나타났고, 모두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측정변수에 대한 잠재변수의 요인 부하량은 모 불안이 .85~.90, 모 회피가 .70~.87, 부 불안이 .82~.87, 부 회피가 .64~.84, 모 정서조절곤란

이 .38~.86, 부 정서조절곤란이 .45~.86, 모 결혼불만족이 .90~.93, 부 결혼불만족이 .87~.92, 모 부정양육행동이 .61~.70, 부 긍정양육행동이 .56~.68이었다.

구조모형 분석

긍정양육행동

성인애착과 긍정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과 결혼불만족이 매개하는 모형을 검증한 결과, $\chi^2(df=646, N=704)=2077.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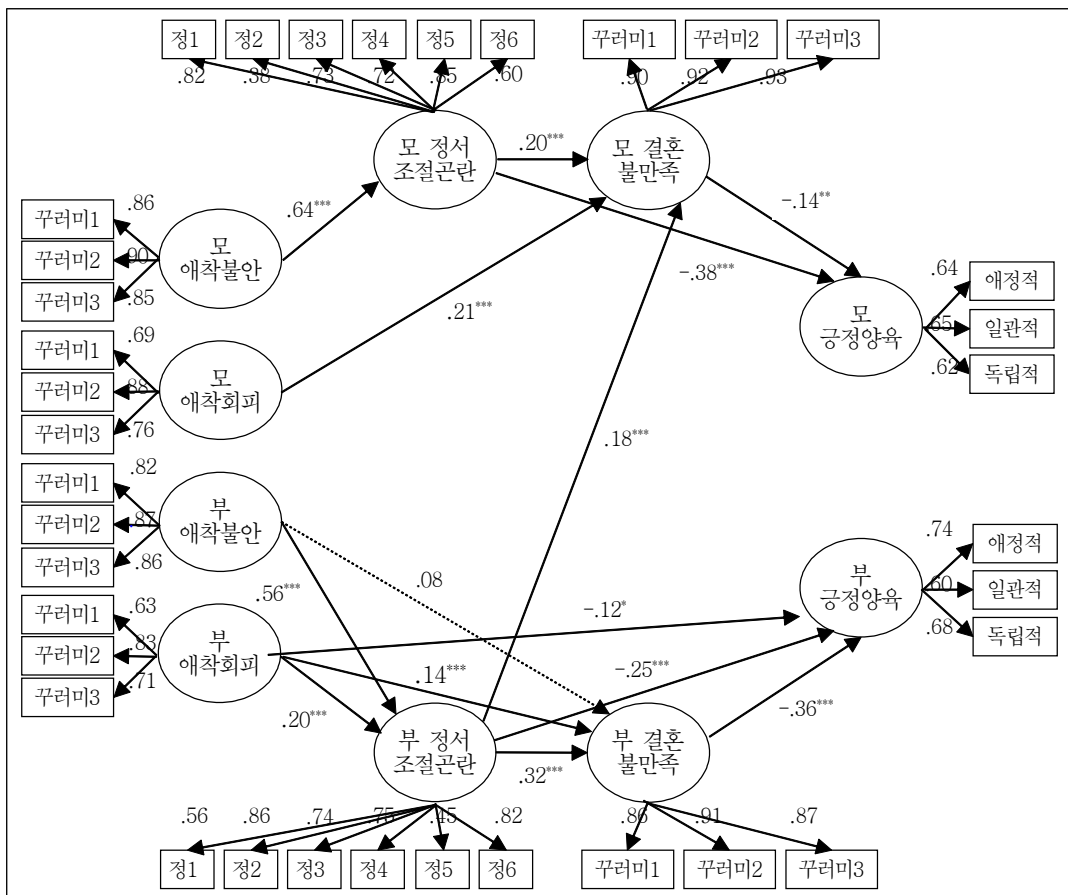


그림 2. 긍정양육행동의 최종모형

주. * $p<.05$, ** $p<.01$, *** $p<.001$, 점선은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의미함.

$p < .001$, CFI=.904, TLI=.884, RMSEA=.056(.053 ~ .059)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총 50개의 직접 경로 중 29개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Martens(2005)의 제안에 따라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한 모형을 수정모형으로 설정하고 χ^2 차이 검증을 통해 가설모형과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우선, 수정모형도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df=675, N=704) = 2110.378$, $p < .001$, CFI=.904, TLI=.895, RMSEA=.055(.052 ~ .058). χ^2 차이 검증을 통해 가설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더 간명한 수정모형(그림 2)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Delta\chi^2(29, N=704) = 32.956(p < .05)$.

최종모형에서 정서조절곤란과 결혼불만족의 간접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절차에 따라 2000개의 표본을 원자료($N=704$)로부터 생성하여 신뢰구간 95%에서 개별 간접 효과

의 유의도를 검증했다. 이때, 간접 효과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alpha=.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부트스트랩 절차에 따른 간접 효과의 검증 결과를 표 2에 제시했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최종모형에서 간접 경로는 총 11개가 존재하는데, 이 중 10개의 간접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애착불안 및 부의 애착회피가 정서조절곤란을 거쳐 긍정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 부모의 애착불안 및 부의 애착회피가 정서조절곤란과 결혼불만족을 순차적으로 거쳐 긍정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 부모의 애착회피가 결혼불만족을 거쳐 긍정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부의 불안정 애착(부의 애착불안, 부의 애착회피)이 부 자신의 정서조절곤란과 모의 결혼불만족을 거쳐 모의

표 2. 긍정양육행동 최종모형의 매개 효과 검증 결과

경로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모 불안	→	모 정서곤란	→	모 긍정양육	-0.14*(-.19 ~ -.10)		
	→	모 정서곤란	→	모 결혼불만	→	모 긍정양육	-0.01*(-.02 ~ -.00)
모 회피	→	모 결혼불만	→	모 긍정양육	-0.02*(-.04 ~ -.01)		
부 불안	→	부 결혼불만	→	부 긍정양육	-0.02 (-.05 ~ -.00)		
	→	부 정서곤란	→	부 긍정양육	-0.11*(-.17 ~ -.06)		
	→	부 정서곤란	→	부 결혼불만	→	부 긍정양육	-0.05*(-.08 ~ -.03)
	→	부 정서곤란	→	모 결혼불만	→	모 긍정양육	-0.01*(-.02 ~ -.00)
부 회피	→	부 결혼불만	→	부 긍정양육	-0.05*(-.09 ~ -.02)		
	→	부 정서곤란	→	부 긍정양육	-0.05*(-.09 ~ -.02)		
	→	부 정서곤란	→	부 결혼불만	→	부 긍정양육	-0.02*(-.04 ~ -.01)
	→	부 정서곤란	→	모 결혼불만	→	모 긍정양육	-0.01*(-.01 ~ -.00)

주. * $p < .05$

긍정양육행동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부정양육행동

성인애착과 부정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과 결혼불만족이 매개하는 모형을 검증한 결과, $\chi^2(df=573, N=704)=1771.344, p<.001, CFI=.916, TLI=.897, RMSEA=.055(.052\sim.057)$ 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총 50개의 직접 경로 중 25개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Martens(2005)의 제안에 따라 유의하지 않

은 경로를 제거한 모형을 수정모형으로 설정하고 χ^2 차이 검증을 통해 가설모형과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우선, 수정모형도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df=598, N=704)=1807.830, p<.001, CFI=.915, TLI=.900, RMSEA=.054(.051\sim.056)$. χ^2 차이 검증을 통해 가설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더 간명한 수정모형(그림 3)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Delta\chi^2(25, N=704)=36.486(p<.05)$. 부트스트랩 절차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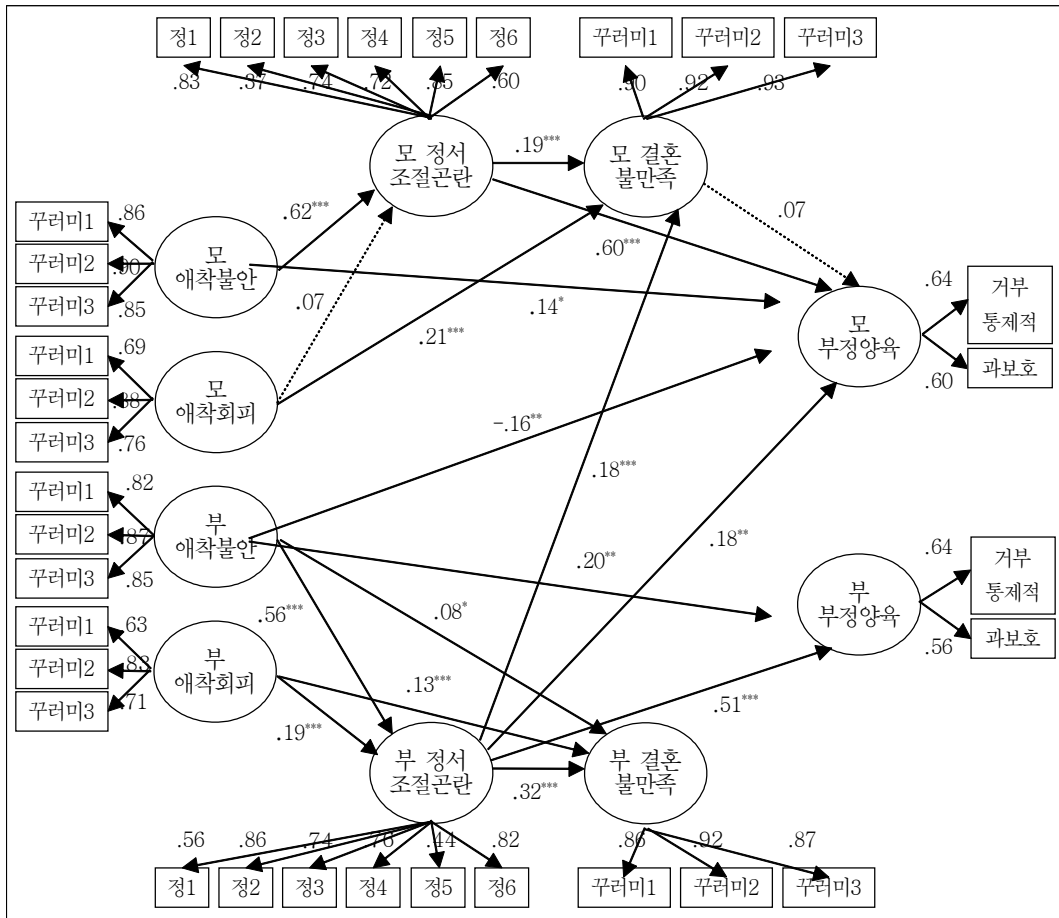


그림 3. 부정양육행동의 최종모형

주. * $p<.05$, ** $p<.01$, *** $p<.001$, 점선은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의미함.

표 3. 부정양육행동 최종모형의 매개 효과 검증 결과

경로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모 불안	→	모 정서곤란	→	모 부정양육	.21*(.15 ~ .29)
	→	모 정서곤란	→	모 결혼불만 → 모 부정양육	.01(-.00 ~ .01)
모 회피	→	모 정서곤란	→	모 부정양육	.03(-.01 ~ .07)
	→	모 정서곤란	→	모 결혼불만 → 모 부정양육	.00(.00 ~ .00)
	→	모 결혼불만	→	모 부정양육	.01(-.00 ~ .03)
부 불안	→	부 정서곤란	→	부 부정양육	.19*(.13 ~ .27)
	→	부 정서곤란	→	모 부정양육	.06*(.02 ~ .11)
	→	부 정서곤란	→	모 결혼불만 → 모 부정양육	.01(-.00 ~ .01)
부 회피	→	부 정서곤란	→	부 부정양육	.09*(.04 ~ .15)
	→	부 정서곤란	→	모 부정양육	.03*(.01 ~ .06)
	→	부 정서곤란	→	모 결혼불만 → 모 부정양육	.00(.00 ~ .00)

주. * $p < .05$

따른 간접 효과의 검증 결과를 표 3에 제시했다. 최종모형에서 간접 경로는 총 11개가 존재하는데, 이 중 5개의 간접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애착불안 및 부의 애착회피가 자신의 정서조절곤란을 거쳐 자신의 부정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가 유의하였다. 또한, 부의 불안정 애착(부의 애착불안, 부의 애착회피)이 부 자신의 정서조절곤란을 거쳐 모의 부정양육행동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애착이론 및 관련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하여, 성인애착과 양육행동의 관계를 정서조절곤란과 결혼불만이 매개하는 인과적 구조모형을 설정하였고, 만 3~5세 자녀의

부모 총 704쌍을 토대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최종모형 검증을 통해 밝혀진 매개효과 및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최종모형 검증을 통해 밝혀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와 어머니가 애착불안 성향을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부모 자신의 긍정양육행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기가 어려울수록 혹은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기가 어렵고 이러한 정서조절의 어려움이 결혼에 대한 불만족을 높이는 것으로 이어질 때, 부모의 긍정양육행동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애착불안 그 자체가 긍정양육행동을 예측하는 단일변인으로는 유의하지 않고, 이 과정에서 정서조절곤란 및 결혼불만족이 연결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불안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결혼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 Davila, Bradbury와 Fincham(1998)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어머니의 애착불안이 정서 조절능력을 완전매개로 어머니의 수용-자율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김재형(2014)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또한 초기 청소년기 동안 부모와의 좋은 관계 경험이 이후 개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결혼만족도는 다시 부모의 긍정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Chen, Liu와 Kaplan(2008)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한편, 아버지와 어머니가 애착회피 성향을 보일수록 부모 자신의 결혼불만족이 높아지고, 이는 결국 애정·일관성·독립 지향적 양육행동의 저하로 이어졌다. 하지만, 아버지의 경우는 이러한 경로 외에도, 애착회피 성향을 보일수록 정서조절의 어려움이 커지거나 혹은 이러한 정서조절의 어려움이 결혼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져 결국 자녀에게 애정과 일관성 있는 양육행동을 보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아버지의 애착회피 성향과 긍정양육행동의 관계를 아버지의 정서조절곤란과 결혼불만족이 매개한다는 결과는 남성의 애착회피 성향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정서조절곤란이 부분매개 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현미나, 채규만, 2012; Davila et al., 1998)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반면 어머니의 애착회피 성향이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을 완전매개로 어머니의 수용-자율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김재형(2014)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 자체가 적기 때문에 무엇이 이러한 연구결과와 차이를 만들어냈는지를 명확히 추론하기가 어렵고, 다만 연구대상 및 연구모형의 차이가

다른 연구결과를 가져왔을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애착회피 성향과 긍정적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재검증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 아버지와 어머니가 애착불안 성향을 보일수록 부모의 부정양육행동이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착불안 성향은 부모 자신의 정서조절능력을 저하시키고, 다시 자녀에 대한 과보호 및 거부 또는 통제적 양육행동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는 어머니의 애착불안 성향이 어머니의 정서조절능력을 완전매개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이현주와 안명희(2012)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동시에, 본 연구를 통해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어머니의 애착회피 성향은 어머니 자신의 부정양육행동에 어떠한 직·간접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애착회피 성향이 심리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가 나오지 않았던 이현주와 안명희(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아버지의 애착회피 성향은 아버지 자신의 부정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아버지의 애착회피 성향이 아버지 자신의 정서조절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아버지의 정서조절곤란은 다시 아버지 자신의 부정양육행동을 높이는 것으로 이어졌다.

셋째, 아버지가 애착불안이나 애착회피 성향을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어머니의 긍정양육행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애착불안이나 애착회피 성향이 아버지 자신의

정서조절능력을 떨어뜨리고, 이러한 아버지의 정서조절곤란이 어머니의 결혼에 대한 만족감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이어지게 될 때, 어머니의 긍정양육행동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아버지가 애착불안이나 애착회피 성향을 보일수록 아버지 자신의 정서조절능력이 저하되고, 이는 다시 어머니의 거부·통제·과보호적 양육행동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중요한 패턴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애착불안 성향이 부모의 성별과 관계없이 공통적인 경로를 따르는데 비해, 애착회피 성향은 부모의 성별에 따른 결과 차이가 컸다. 특히 아버지의 애착회피 성향은 어머니의 애착회피 성향과 갖는 공통성보다 오히려 아버지 자신의 애착불안 성향과 더 큰 공통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성차(性差)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성인애착의 영향을 더 살펴보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관련 연구 및 이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아버지의 성인애착은 어머니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어머니의 성인애착은 아버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Paley, Cox, Burchinal, 과 Payne(1999)의 연구에서도 결혼관계에서 아내가 보이는 행동이 배우자의 애착유형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편은 그렇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아내들이 남편들보다 종종 배우자의 불안정애착과 관련된 이슈와 행동들을 자각함으로써, 정서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추론과도 일치한다(Feeney, 1999). 이와 관련하여, Allen과 Thompson(1984)은 일반적인 가부장적 가정 내

에서 보통 남편이 권력자이고 아내가 피권력자이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할 필요성이 적지만 피권력자인 아내는 권력자인 남편의 특성을 잘 알아야 처신이 편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의 특성에 보다 민감하고 그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셋째, 전반적으로 애착불안 성향에 비해 애착회피 성향이 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작고, 어머니의 경우 특히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이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성향의 특성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개별적이고 서로 독립적이라고 주장한 Brennan 등(1998)이나 국내외 연구자들의 주장(안명희, 2010a; 이정희, 심혜숙, 2007; Hwang, 2006)을 뒷받침해주는 결과일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애착회피 성향의 영향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온 것과 관련해서, 이를 성인 애착 특성에서 비롯되는 자기보고 패턴의 차이로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즉, 애착불안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사용하는 과잉활성화 전략이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자기보고를 증폭시키는 반면, 애착회피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사용하는 비활성화 전략은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자기보고를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다른 변인에 미치는 애착회피 성향의 영향이 실제보다 더 낮게 보고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애착회피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부인·방어·억제 등을 통해 겉으로는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타인과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Feeney & Collins, 2004), 긍정적인 정서의 표현까지도 억압하기 때문에(Adam, Gunnar, & Tanaka, 2004; Gross & John, 2003; Pianta, Egeland, & Adam, 1996), 결

과적으로는 결혼만족 및 긍정양육행동에 해를 끼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애착회피의 영향이 부정적인 변인(예: 모의 부정양육행동)에서는 애착불안만큼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으나, 긍정적인 변인(예: 모의 긍정양육행동)에서는 애착불안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약간 작은 정도의 크기로 부정적인 영향이 감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부모의 성인애착은 자신의 긍정/부정양육행동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정서조절곤란과 결혼불만족의 매개변인을 통해 자신과 상대방의 양육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보다 설득력 있고 이론적으로 타당한 매개변인을 설정하여 통합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변수들의 부분 관계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애착이론의 원형가설과 기존 애착관련 연구에 입각하여 매개변인을 설정함으로써 부모의 성인애착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경로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둘째, 긍정양육행동과 부정양육행동의 최종 모형에서 양육행동(긍정/부정)에 따라 변인들의 관계가 성립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단순히 부정양육행동만을 살펴보고 긍정양육행동은 관계의 방향만 다를 뿐, 부정양육행동에서의 결과와 같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선행 연구들의 추론 및 해석이 잘못된 것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긍정양육행동과 부정양육행동을 양육행동으로 통합하여 살펴보는 경우, 양육행동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들을 섬세하게 감지해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육행동에 대한 구분된 접근이 필요함을 밝혔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 커플 자료를 통해 다른 선행 연구들(박영화, 고재홍, 2005; Beach & O'Leary, 1993; Rholes, Simson, & Friedman, 2006)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불만족의 상관($r=.64$)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애착불안/회피 성향이 아버지 자신의 정서조절곤란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아버지의 정서조절곤란이 어머니의 결혼불만족을 심화시켜 어머니의 긍정양육행동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이어지거나, 아버지의 애착불안/회피 성향이 아버지의 정서조절을 어렵게 하고 이는 다시 어머니의 부정양육행동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부부의 밀접한 상호관련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부부 및 부모-자녀관계를 연구하는 경우, 쌍 자료를 수집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한편, 본 연구결과는 상담의 실제에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시사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부모의 성인애착은 직접 혹은 정서조절곤란 및 결혼불만족을 매개로 긍정/부정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부모교육 및 상담 시 단순히 부모의 양육기술(예: 민감성이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는 활동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애착 경향성이 현재의 자녀양육행동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갖도록 하는 상담 작업의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둘째, 이미 형성된 성인애착을 변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으며(현미나, 채규만,

2012), 과거의 애착 경험 자체에 대한 탐색이나 치유에 초점을 맞추고 통찰을 촉진하는 것만으로는 양육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매개변인으로 확인된 정서조절곤란과 결혼불만족도 변인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겠다. Mikulincer와 Shaver(2012)는 불안정애착 그 자체가 정신병리의 충분한 원인이 아니라 불안정애착과 정신병리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정서조절의 어려움이 부모의 애착불안 및 아버지의 애착회피 성향과 긍정/부정 양육행동의 관계를 매개하거나, 부모의 정서조절곤란이 결혼불만족을 높이고 또 다시 긍정양육행동 저하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부모의 정서조절능력을 키워줌으로써 부모의 애착불안 및 아버지의 애착회피 성향이 부부관계 및 부모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아버지의 정서조절곤란은 자신의 양육행동뿐 아니라 어머니의 긍정/부정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통로가 되므로 부모 상담 및 교육 시 아버지를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겠고, 아버지의 정서조절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에 더욱 더 초점을 둘 필요가 있겠다. 정서조절은 성인기에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영역이므로 실질적인 치료적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이다(류수정, 2010; 현미나, 채규만, 2012).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상담에서 치료의 초점으로 삼아야 할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실용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연구변인들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실제 행동이 잘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애착회피 성향을 보이는 경우, 주로 비활성화된 전략을 사용하여 정서에 반응하기 때문에 자기보고를 통해 정서관련 영역들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Kobak & Sceery, 1988; Mikulincer, Shaver, & Pereg, 2003). 다음으로, 정서조절을 잘한다는 의미는 부정적인 정서를 단순히 표출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자극되는 상황에서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반응하여 균형감 있게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한다(Salovey & Mayer, 1990; Thompson, 1994; 이시은, 2009에서 재인용). 그런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보고식 정서조절곤란 척도는 부정적인 감정의 통제여부에 더 비중이 실려 있는 반면,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전략을 통한 정서조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부정적인 정서가 촉발되었을 때 이를 행동화할 가능성이 높은 애착불안 성향의 정서조절곤란은 잘 드러나지만 부정적인 정서를 억압하여 행동화하는 것을 피하는 애착회피 성향의 정서조절곤란 정도는 낮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부정양육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긍정양육행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듯이 정서조절곤란이 낮게 보고된다고 해서 이것이 정서조절을 잘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정서조절의 실제 모습을 더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관찰 자료나 인터뷰 등의 중다평가적 기법을 도입하여 정서조절을 평가하고, 정서조절 전략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오프라인을 통한 자료

수집은 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을 통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비교적 협조적인 성격을 보이는 부모들이 연구에 참여했을 가능성, 실제의 모습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거나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설문에 응했을 가능성, 특히 기관을 통해 설문에 참여한 부모들의 경우에 자녀로부터 전달받은 설문지를 아버지와 어머니 중 한 참여자가 동시에 체크했을 가능성, 교회 포함 등 표집의 특수성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자료가 수집된 지역이 주로 서울·경기·충북 지역에 편중되어 임의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을 영향을 주는 변수로 가정하였다. 그런데 애착 표상과 결혼만족도는 동시에 공변한다는 증거가 있고 (Davila et al., 1998; Feeney, Noller, & Callan, 1994; Fuller & Fincham, 1995), Davila, Karney와 Bradbury(1999)는 결혼만족도에 따라 애착표상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으며, Rholes, Simpson, Campbell과 Grich(2001)은 애착이 결혼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결혼의 질에 따라 애착이 변화하는 것인지에 대해 후속 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Kobak(1994)도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내적작동모델을 평가하여 내적작동모델이 현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내적작동모델이 새로운 관계 경험에 적응하기 위해서 변화되는지를 중단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절곤란이 결혼불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지만 반대로 결혼불만족도가 정서조절곤란을 더 심화시킨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 간

에는 개념적 순환이 있을 수 있기에 추후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것과 반대 방향으로, 즉 결혼불만족이 성인애착에 영향을 줄 가능성 혹은 결혼불만족이 정서조절곤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부연하면, 본 연구가 기본적으로 상관연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변인 간 양방향의 인과적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과적 관계가 적합한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거나 역방향으로 연구설계를 하여 비교해보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넷째, 변인 및 모형 설정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독립변인, 매개변인, 준거변인을 같은 시기에 측정된 횡단연구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은 모두 심리적 과정들을 측정하는 변인들이므로 어떤 변인이 다른 변인에 선행하는지를 밝히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인들을 인과적 순서로 배열하고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모순이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 매개변인을 활용한 보다 더 정확한 연구가 되려면 변인들의 시간적 순서를 고려하여 단기 중단 연구를 수행하여 변인들 간의 인과 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겠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애정적·일관적·독립적 태도를 긍정적 양육행동으로, 거부/통제적·과보호적 태도를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임의적으로 재범주화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양육행동 각각의 하위 척도들은 서로 독립적인 구성개념이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양육행동을 다시 요인분석을 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양육행동 차원을 구분하거나 5개의 양육태도를 각각의 독립된 차원으로 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결혼기간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런데 성인애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결혼기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즉, 7년 미만의 초기부부들에게는 배우자의 회피적 성향과 대응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으나(Kilmann, 2012; Sibley & Liu, 2006), 결혼기간이 7년 이상 경과하면서 부터는 지나치게 주도적·자기중심적·감정적 대응을 하는 애착불안 성향이 더 부부갈등을 심화시키고 결혼만족도를 낮춘다는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성인애착의 영향이 결혼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Kilmann, 2012)을 고려하여, 본 연구모형을 재검증해볼 필요가 있겠다.

일곱째, 부모의 애착불안이 다른 변인과 갖는 관계 양상은 공통점이 많은 반면, 부모의 애착회피는 공통적으로 묶여지는 특성이 적었다. 즉, 부모의 애착회피는 부모의 애착불안에 비해 전반적으로 다른 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약하다는 점과 긍정양육행동에 결혼만족을 매개로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외하면 애착회피 성향에 따른 공통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추후 연구를 통해 같은 애착회피 성향을 보인다 하더라도 성별에 따라 구분되는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애착회피 성향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상 언급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관심의 초점을 자녀가 아닌 부모에게 두고, 애착이론 및 관련 선행 연구에 기반하여 부모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인들을 통합적으로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양육의 어려움을 지닌 부모님들이 자신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심리내적·관계적 특성을 반

추해 볼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정혜, 채규만 (1998). 한국판 결혼만족도 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 논문집, 35-51.
- 권정혜, 채규만 (1999). 한국판 결혼만족도 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II: 이혼상담 집단과 자녀 상담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8(2), 139-150.
- 김광은 (2005). 성인 애착 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 및 부부 갈등 대처 전략.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707-734.
- 김동직, 한성열 (1997). 한국 대학생의 애착 유형 분포와 대인관계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2), 91-109.
- 김성현 (2004). 친밀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혜 (2011).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보육서비스 질의 영향-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비교.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형 (2014).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정신화 능력과 지각된 배우자 지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수정 (2010). 애착에 따른 정서경험과 정서표현, 정서조절의 관계.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 이 숙 (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 연구. 대한가정학

- 회지, 28(1), 141-156.
- 박영신, 김의철 (1998). 청소년 비행과 성취행동, 가정환경, 귀인양식, 건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29-53.
- 박영화, 고재홍 (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방식 및 갈등 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65-83.
- 박정윤, 장영은 (2013). 기혼취업여성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5), 159-172.
- 방희정 (2009). 애착연구를 통해 본 부모역할 (parenting)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1), 67-91.
- 배병렬 (2011). AMOS 19.0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송병호, 최규정 (2000). 다중공선성에 관한 연구. 통계연구소논문지, 2(1), 61-93.
- 안명희 (2010a). 모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심리적 통제: 모의 정서와 자아 유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691-710.
- 안명희 (2010b).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정서와 심리적 통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4), 867-885.
- 안하얀 (2016). 커플의 성인애착, 정서조절전략, 심리적 욕구 충족과 관계적응 간의 관계: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매개 모형의 적용.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우영 (1998). 유아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양육관련 변인의 인과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소영, 김혜진 (2013). 맞벌이 기혼남성의 일-가정 균형의 주관적 인식 및 갈등정도와 가정의 건강성 인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2), 19-35.
- 이선희 (2012). 학령기 자녀의 부모용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순형, 이영미 (1992).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불일치. 청소년학 연구, 1(1), 59-75.
- 이시은 (2009). 성인애착과 정서조절 양식의 관계에 대한 자아 존중감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4), 897-914.
- 이시은, 이재창 (2005). 대학생의 애착유형, 부모 또래 애착 그리고 정서적 특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947-963.
- 이영미, 민하영 (2006). 아버지의 유아 양육참여에 대한 가족 사회 인구학적 변인과 유아 기질의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4), 93-101.
- 이윤영, 전효정 (200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 성인애착유형과 사랑유형.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2), 99-121.
- 이윤정 (2016). 중년 부부의 성인애착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희, 심혜숙 (2007). 상담일반: 성인애착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공변량 구조분석. 상담학연구, 8(3), 899-915.
- 이현주, 안명희 (2012).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청소년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 정신화 능력과 부정적 정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3), 413-434.

- 이희숙, 박경 (2008). 성인애착과 결혼 만족 간의 관계: 보살핌과 성적 친밀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3), 671-689.
- 임정하 (2006). 한국적 부모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발달특성과의 관계-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책임감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3(1), 135-151.
- 장빛나 (2016). 성인애착과 관계친화 행동의 관계에서 결혼 신성화의 매개효과: 기독교인 부부 대상 자기 및 상대방 효과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효정 (2003). 어머니-유아 애착의 세대 간 전이의 메커니즘: 어머니의 내적 실행 모델과 자녀 양육행동이 유아의 애착유형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8(3), 159-174.
- 정현숙 (2001).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 개발을 위한 이론적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9(11), 89-106.
- 조용래 (2007). 정서조절곤란의 평가: 한국판 척도의 심리 측정적 속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4), 1015-1038.
- 최효식, 연은모 (2014). 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긍정적 양육태도 간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8(6), 5-30.
- 최효식, 연은모, 윤영, 홍윤정 (2014).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회*, 84(1), 57-84.
- 한혜영, 현명호 (2006). 성인애착과 결혼만족 - 부부 조망수용과 갈등해결 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4), 935-952.
- 현미나, 채규만 (2012). 성인애착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4), 69-85.
- Adam, E. K., Gunnar, M. R., & Tanaka, A. (2004). Adult attachment, parent emotion, and observed parenting behavior: Mediator and moderator models. *Child Development*, 75(1), 110-122.
- Allen, A., & Thompson, T. (1984). Agreement, understanding, realization, and feeling understood as predictors of communicative satisfaction in marital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915-921.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 411-423.
- Beach, S. R. H., & O'Leary, K. D. (1993). Dysphoria and marital discord: Are dysphoric individuals at risk for marital maladjustment?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9, 355-368.
- Belsky, J., Sligo, J., Jaffee, S. R., Woodward, L., & Silva, P. A. (2005).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warm-sensitive-stimulating parenting: A prospective study of mothers and fathers of 3-year-olds. *Child Development*, 76(2), 384-396.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246.
- Block, J. H. (1981). *The Child-Rearing Practices Report (CRPR): A set of Q items for the description of parental socialization attitudes and*

- value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Institute of Human Development.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Basic Books.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romantic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 46-76). New York: Guilford Press.
- Caspi, A., & Elder, G. H. (1988). Emergent family patterns: The intergenerational construction of problem behavior and relationships. In R. Hinde & J. Stevenson-Hinde (Eds.), *Relationships within families* (pp. 218-240).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 Chen, Z., & Kaplan, H. (2001).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onstructive parent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3(1), 17-31.
- Chen, Z., Liu, R. X., & Kaplan, H. B. (2008). Mediating mechanisms for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onstructive parenting: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Family Issues*, 29(12), 1574-1599.
- Clulow, C. (2009). Intergenerational pathways linking attachment security in parents and outcomes in children: A clinical commentary.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11(1), 111-117.
- Cohn, D. A., Cowan, P. A., Cowan, C. P., & Pearson, J. (1992). Mothers' and fathers' working models of childhood attachment relationships, parenting styles, and child behavior. *Development & Psychopathology*, 4(3), 417-431.
- Cook, W. L. (2000). Understanding attachment security in family contex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285-294.
- Cook, W. L., & Kenny, D. A. (2005).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 model of bidirectional effects in developmental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 101-109.
- Cowan, P. A., Cowan, C. P., & Mehta, N. (2009). Adult attachment, couple attachment, and children's adaptation to school: An integrated attachment template and family risk model.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11(1), 29-46.
- Cummings, E. M., Goeke-Morey, M. C., & Raymond, J. (2004). Fathers in family context: Effects of marital quality and marital conflict.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pp. 196-121).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Das Eiden, R., Teti, D. M., & Corns, K. M. (1995). Maternal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marital adjustment,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66, 1504-1518.
- Davila, J., Bradbury, T. N., & Fincham, F. (1998). Negative affectivity as a mediator of the association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Personal Relationships*, 5, 467-484.
- Davila, J., Karney, B. R., & Bradbury, T. N. (1999). Attachment change processes in the early years of marria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5), 783-802.

- Dickstein, S., Seifer, R., Albus, K. E., & Magee, K. D. (2004). Attachment patterns across multiple family relationships in adulthood: Associations with maternal depress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6*(3), 735-751.
- Feeney, J. A. (1999). Adult attachment, emotional control, and marital satisfaction. *Personal Relationships, 6*, 169-185.
- Feeney, J. A. (2003). Adult attachment, involvement in infant care, and adjustment to new parenthood. *Journal of Systemic Therapies, 22*(2), 16-30.
- Feeney, B. C., & Collins, N. L. (2004). Interpersonal safe haven and secure base care giving processes in adulthood. In W. S. Rholes & J. A. Simpson (Eds.), *Adult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implications* (pp. 300-338). New York: Guilford Press.
- Feeney, J. A., Noller, P., & Callan, V. J. (1994). Attachment style, communication, and satisfaction in the early years of marriage.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5*, 269-308.
- Fra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A. (2000). An item-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350-365.
- Fuller, T. L., & Fincham, F. D. (1995). Attachment style in married couples: Relation to current marital functioning, stability over time, and method of assessment. *Personal Relationships, 2*, 17-34.
- Gardner, K., Qualter, P., & Whiteley, H. (2011). Developmental correlates of emotional intelligence: Temperament, family environment and childhood trauma.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63*(2), 75-82.
- George, C. (2009). Couple relationships and the family system: Commentary from a behavioral systems perspective.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11*(1), 103-110.
- Gratz, K. L., & Roemer, L. (2004).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Development, factor structure,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6*, 41-54.
- Gross, J. J., & John, O. P.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348-362.
- Hamilton, C. E. (2000).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f attachment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1*, 690-694.
- Hill, J., Fonagy, P., Safier, E., & Sargent, J. (2003). The ecology of attachment in the family. *Family Process, 42*(2), 205-221.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y Measurement, 63*(4), 636-654.
- Hwang, J. E. (2006). *A processing model of emotion regulation: Insights from the attachment system*. Dissertation, Georgia State University.

- Kaufman, J., & Zigler, E. (1989).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hild abuse. In D. Cicchetti & V. Carlson (Eds.), *Child maltreatment: Theory and research o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pp. 129-15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nny, D. A. (1996). Models of interdependence in dyadic research.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 167-178.
- Kilmann, P. R. (2012).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characteristic within distressed marriage. *The Family Journal: Counselling and Therapy for Couples and Families*, 20(2), 131-139.
- Kobak, R. R. (1994). Adult attachment: A personality or relationship construct. *Psychological Inquiry*, 5, 42-44.
- Kobak, R. 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Lewis, M., Feiring, C., & Rosenthal, S. (2000). Attachment over time. *Child Development*, 71(3), 707-720.
- Lovejoy, M. C., Graczyk, P. A., O'Hare, E., & Neuman, G. (2000). Maternal depression and parenting behavior: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0, 561-592.
- Luster, T., & Okagaki, L. (1993). *Multiple influences on parenting: Ecological and Life-course Perspectives*. Hillsdale: Lawrence Erlbaum.
- MacCallum, R. C., Browne, M. W., & Sugawara, H. M. (1996). Power analysis and determination of sample size for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Psychological Methods*, 1(2), 130-149.
- Marsh, H. W., Martin, D., James, P., & Richard, W. (2004). Why multicollinearity matters: A reexamination of relations between self-efficacy, self-concept,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6(3), 518-522.
- Martens, M. P. (2005). The us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3(3), 269-298.
- Marvin, R. S., & Stewart, R. B. (1990). A family systems framework for the study of attachment.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pp. 51-86).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ikulincer, M., & Shaver, P. R. (2012). An attachment perspective on psychopathology. *World Psychiatry*, 11, 11-15.
- Mikulincer, M., Shaver, P. R., & Pereg, D. (2003). Attachment theory and affect regulation: The dynamics, development, and cognitive consequences of attachment-related strategies. *Motivation and Emotion*, 27(2), 77-102.
- Overbeek, G., Vollebergh, W., Engels, R. C. M. E., & Meeus, W. (2003). Parental attachment and romantic relationships: Associations with emotional disturbance during late adolesc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1), 28-38.
- Paley, B., Cox, M. J., Burchinal, M. R., & Payne, C. C. (1999). Attachment and marital functioning: Comparison of spouses with continuous-secure, earned-secure, dismissing,

- and preoccupied attachment stanc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3(4), 580-597.
- Pianta, R., Egeland, B., & Adam, E. (1996). Adult attachment classification and self-reported psychiatric symptomatology as assessed by the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2.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 273-281.
- Ponnet, K., Morreelmans, D., Wouters, E., Van Leeuwen, K., Bastiaens, K., & Pasteels, I. (2013). Parenting stress and marital relationship as determinants of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Personal Relationships*, 20(2), 259-276.
- Rane, T. R. & McBride, B. A. (2000). Identity theory as a guide to understanding fathers' involvement with their children. *Journal of Family Issues*, 21(3), 347-366.
- Rholes, W. S., Simpson, J. A., Campbell, L., & Grich, J. (2001). Adult attachment and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3), 421-435.
- Rholes, W. S., Simpson, J. A., & Friedman, M. (2006). Avoidant attachment and the experience of parent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3), 275-285.
- Roisman, G. I., Padron, E., Sroufe, L. A., & Egeland, B. (2002). Earned-secure attachment status in retrospect and prospect. *Child Development*, 73(4), 1204-1219.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18-29.
-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11.
- Shaffer, A., Burt, K. B., Obradović, J., Herbers, J. E., & Masten, A. S. (2009). Intergenerational continuity in parenting quality: The mediating role of social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45(5), 1227-1240.
- Shaver, P. R., Belsky, J., & Brennan, L. A. (2000).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and self-reports of romantic attachment: Associations across domains and methods. *Personal Relationships*, 7(1), 25-43.
- Shaver, P. R., & Mikulincer, M. (2002). Attachment-related psychodynamics.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4, 133-161.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ibley, C. G., & Liu, J. H. (2006). Working models of romantic attachment and the subjective quality of social interaction across relational contexts. *Personal Relationships*, 13, 243-259.
- Simpson, J. A., Rholes, W. S., & Nelligan, J. S. (1992). Support seeking and support giving within couples in an anxiety-provoking situation: The role of attachment sty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3), 434-446.
- Snyder, D. K. (1979).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813-823.
- Sroufe, L. A. (2005). Attachment and development:

-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from birth to adulthood.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7(4), 349-367.
- Sroufe, L. A., Egeland, B., Carlson, E., & Collins, W. A. (2005). Placing early attachment experiences in developmental context. In K. E. Grossmann, K. Grossmann, & E. Waters (Eds.), *The power of longitudinal attachment research: From infancy and childhood to adulthood* (pp. 48-70). New York: Guilford Press.
- Van Ijzendoorn, M. H. (1992).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arenting: A review of studies in nonclinical populations. *Developmental Review*, 12(1), 76-99.
- 원 고 접 수 일 : 2016. 06. 30
수정원고접수일 : 2016. 10. 10
게 재 결 정 일 : 2016. 12. 07

Emotion Regulation and Marital Dissatisfaction as Mediating Factors in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dult Attachment and Parenting Behaviors

Hye-Weon Kim

Sung-Kyung Yoo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confirm the mediating effects of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and marital dis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dult attachment and behaviors. Data was collected from 704 parental units with children ages of 3-5, and analyzed using the APIM model.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Parental attachment anxiety positively affected parenting behaviors through the complete mediation of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and through the sequential double mediation of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and marital dissatisfaction. Negative parental behaviors were directly affected through the partial mediation of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This was especially true for paternal attachment avoidance; however, while maternal attachment avoidance positively affected parenting behaviors through the complete mediation of marital dissatisfaction, it had no effect on negative parenting behaviors. Second, parental adult attachment's effect on their spouses' parenting behaviors was observed exclusively among fathers. Significance, limitation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words : adult attachment, emotion dysregulation, marital dissatisfaction, parenting behaviors, APIM model